

감스트 “광주FC, 알 힐랄전 공격적인 모습 놀라웠다”

장성 출신… 광주서 학창시절 보내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계도
경기장 개선 등 K리그 발전 조언도
“이정효만의 도전적인 축구 ‘흥미’”

“알 힐랄은 선수층이 유럽에서도 주전급의 강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해서 지지 않는 축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풀어나갔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지난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모터스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 경기에 앞서 시축에 나선 감스트(33·본명 김민직)가 내린 광주 축구에 대한 평가다.

구독자 286만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스트GAMST’와 SOOP TV(전 아프리카 TV) ‘BJ감스트’로 활동 중인 그는 아프리카TV BJ대상을 7년 사이 아홉 차례 수상한 스타 방송인이다.



구독자 28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감스트(본명 김민직)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장성군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창 시절과 군대를 다녀온 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광주에서 생활했던 만큼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그만큼 그동안 광주FC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접했고 최근에는 개인 방송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

트(ACLE) 경기 중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FC와 알 힐랄의 맞대결을 보면서 ‘놀라운 팀’이라고 평가했다. 강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한다는 걸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했다는 것이 감스트의 설명이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결과를 떠나 부끄러운 일이 될 텐데 공격적인 선택을 했고 심지어 알 힐랄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다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것이다.

K리그 홍보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감스트는 한국 축구를 위한 조언도 빼먹지 않았다. 종합 경기장의 경우 관중석과 경기장이 너무 먼 경향이 있고 접근성도 경기장마다 천차만별이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특히 리그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10대 관객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10대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소비 시장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단순 젊은 세대를 넘어 이들의 부모도 함께 리그의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가족 단위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J리그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프로 리그처럼 적극적인 자본 투자를 활용해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감스트는 “광주FC 경기를 중계로는 자주 봤지만 홈경기 직관을 온 것은 처음이다. 응원하는 마음 반과 부담 반을 가지고 시축을 맡았고 오늘 직접 봐야 보니 잔디도 너무 좋았다”며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철저히 계산적인 현대 축구와 달리 도전적인 색채를 보여주고 있어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서석중 검토,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

개인전 윤찬희 銀·옥하준 銅
조선대 검토부도 단체전 금

광주서석중학교 검토부가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2개 대회 연속 우승기를 휘날렸다.

서석중 검토부는 지난 8~11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상인천중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서석중은 지난 3월 용인대 총장기 검토대회에 이어 올시즌 두 번째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서석중은 조치원중(5-0 승)과 성남중(3-0 승)을 차례로 꺾은 뒤 4강전에서 순천왕윤중을 2-1로 물리쳤다.

서석중은 결승에서 상인천중을 상대로 선봉 권민수와 2위 문율이 득점없이 비긴 뒤 중견 윤찬희가 상대 박효관에게 0-2로 저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부장 허경도가 상대 고종수를 2-0으로 꺾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주장전에서 옥하준이 상대 김민상을 2-1로 제압해 전체 스코어 2-1로 역전 우승을 일궜다.

윤찬희와 옥하준은 남중부 개인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윤찬희는 개인전 결승에서 김민상(상인천중)에 0-1로, 옥하준은 준결승에서 김민상에 1-2로 각각 졌다.

이재경 서석중 검토감독은 “선수단 전원이 동계훈련부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 결과 연속 우승을 하며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 좋은 기세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 검토부도 남대부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조선대는 예선에서 제주대와 우석대를 연파한 뒤 준결승에서 용인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충북대와 결승에선 선봉 김민수가 상대 강주원을 2-1로, 2위 함우진이 도원검을 2-0으로 이겨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중견 정우진이 성민제에 0-1로 졌으나 부장 안태준이 윤두현을 2-0으로 물리쳐 우승을 확정지은 뒤 주장 조도현이 김상혁에 0-2로 저 최종 스코어 3-2로 승리했다.

광주 탐솔과 전지운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준결승에서 박시은(충남체육회)에 0-1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최동한 기자

전남·경북, 영광서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14~16일 생활체육 교류행사
게이트볼·파크골프 등 6종목

전라남도도와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영광에서 만나 우정을 나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14~16일 3일간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2025 전남-경북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류행사는 15~16일 열리는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경북 어르신생활체육교류단은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을 단장으로 게이트볼, 탁구, 그라운드골프, 소프트테니스, 파크골

프,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의 만 60세 이상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남 어르신들과 종목별 친선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첫날인 14일 영광스포티움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지역 명소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탐방과 환영만찬에 참가, 친목을 도모한다.

15일에는 제20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참석과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종목별 친선경기를 펼친다.

행사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종목별 교류와 불갑사 및 불갑산생태공원을 탐방을 끝으로 석별의 정을 나눈다. 최동한 기자

광주FC, 코리아컵 16강서 수원FC 잡는다

잇단 경기에서 체력 안배 중요



광주FC가 코리아컵 8강 진출을 위해 수원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16강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코리아컵 3라운드 경주한수원전서 가브리엘, 박인혁의 연속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한 바 있다. ACLE는 종료됐지만, 뻑뻑한 리그 일정 속에서도 가용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코리아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광주는 지난 11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총력전을 치른 지 3일 만에 수원FC 원정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시즌 초부터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한 결과, 어떤 선수가 출전하더라도 광주의 축구 철학과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이는 이미 지난 경주한수원과의 경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당시 노희동, 진시우, 권성운, 홍용준, 안혁주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빼어난 활약을 통해 승리를 가져왔다.

수원FC전 키 플레이어는 ‘돌격대장’ 가브리엘이다. 직전 코리아컵 3라운드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가브리엘은 전반 김한길의



광주FC가 1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진행한다. 사진은 광주FC 가브리엘 선수가 지난달 16일 K3리그 소속 경주한수원과의 경기에서 득점 후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제공

크로스를 정확한 가슴 트래킹 후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후 후반전엔 특급 도우미로 변신해 박인혁에게 예리한 스루패스를 건네며 어시스트를 추가했다.

심지어 가브리엘은 주말 전북과의 경기에서 후반 31분 교체 투입되어 특유의 번

뜩이는 움직임과 파워풀한 돌파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체력 안배와 함께 경기력까지 끌어올린 만큼 수원FC전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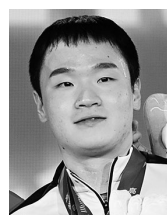
광주가 적전에서 수원FC를 꺾고 코리아컵 우승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광주 출신’ 손현호, 亞역도선수권 용상 금메달

광주 송정중-정광고 출신 손현호(국군체육부대·사진)가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손현호는 12일(한국 시간) 중국 장산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경기에서 인상 157kg, 용상 200kg을 들어올리며 합계 357kg을 기록했다.

아시아선수권은 합계로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인상과



용상, 합계에 대한 순위를 나눠 각각 메달이 주어진다.

손현호는 용상에서 중국 선수와 기록이 같지만 1차시기에서 200kg을 먼저 들어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인상은 중국(162kg)과 인도네시아(161kg) 선수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합계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군 복무를 시작한 손현호는 오는 7월 제대하고 광주시청에 복귀 예정이다.

손현호는 경기 후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때 용상에서 동메달을 땀는데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용상 금메달과 인상·합계에서 동메달 따 기쁘지만 조금 아쉽다”며 “인상 종목을 더 보강해 올해 세계선수권과 내년 아시안게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한 기자